

47년만에 뭉친 초로의 시인들 '다시, 화양연화'

1975년 전남 고교생 시인들, 전국 첫 학생시조협회 결성 송선영 시인 지도로 창작...중앙문단 등단 등 활발한 활동 오종문·최향숙 시인 등 참여 사회집 발간...15일 출판기념회

“무등산 아래 그곳./ 시인 송선영 선생님과/ 소년, 소녀들이 질판 앞에 둘러앉아/ 시를 얘기하고, 시를 썼다// 어떤 날은 버스를 타고/ 풍경 속으로 소풍을 다녔다// 늘 내 안에 있는 내 학교였다// 내 시 학교였다// 사십 년이 더 되었다// 지금도 불현 듯 나를 불러세우는 그곳이/ 나를 만들었다” (윤희상, '전남학생시조협회' 전문)



었던 학생들은 60, 70이 넘는 '젊은 노인'으로 바뀌었다. 재기발랄하고 수줍이 많은 이들은 이제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며 삶의 의미를 반추하는 나이에 접어들었다.

전남학생시조협회가 지도교사와함께 사회집을 발간해 화제다.

사회집(詞華集)이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시나 문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골라 모아 엮은 책'을 말하는데 이번 시집에는 모두 8명의 시인들 작품이 실렸다.

무엇보다 스승과 제자들의 작품을 모은 작품의 제목이 강렬하면서도 서정적이다. '다시, 화양연화' (이미지북)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다시 소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목 옆에 붙은 '도풍시 47년만의 약속-전남학생시조협회 사회집'이라는 부제가 이번 작품집의 처음과 끝을 말해준다.

책에는 송선영 시인의 '강강수월래'를 비롯해 오종문 시인의 '봄 끝 길다', 이재창 시인의 '적멸의 그리움', 이근택 시인의 '바다코끼리', 최양삼 시인의 '매의 허공', 윤희상 시인의 '돌을 쥌는 마음', 박정호 시인의 '산다경', 박현덕 시인의 '저녁이 오는 시간' 등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이지엽 시인(경기대 국문과 교수)은 "이 시집은 한국시조문학의 흐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75년 광주에서 전남 고교생들이 결성한 전남학생시조협회는 전국 최초 고교생 시조동인회다.

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 시단이 처한 문제점들을 주체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다고도 판단되었다"고 평을 한다.

송선영 시인은 이번 작품집 발간에 대해 "장간호 '도풍시'를 비롯해 2집 '무등문학'과 3, 4, 5, 6집의 '도풍시'까지 발간하는 저력을 과시했지만 지금은 맥이 끊겨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그럼에도 많은 동인들이 중앙문단에 진출해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흐뭇해했다.

그러면서 "47년이 흐른 지금 이들이 한데 모여 나를 불러내어 한 지면에 시조를 활자화시키니 너무나 기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회집이 나오기까지 오종문 시인이 손을 보았다. 전국 최초 고등학생이 만든 학생 시조동

인지라는 자리매김이라는 의미도 깃들여 있다.

오종문 시인은 "소년소녀 학생들을 지도하고 문단진출을 이끌어 준 스승에 대한 헌신적 성격도 갖고 있다"며 "광주전남의 시조문학이 이 뜻을 계속 이어 옛날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시, 화양연화' 출판기념회가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 황솔촌 운암정(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167)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남학생시조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가 주관하며 송선영 시인과 선후배 시인들을 모시고 오찬과 시담(詩談)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능주 씻김굿 즐겨보세~ 내일 오전 능주면 역사관

방자를 저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 행하는 의례를 씻김굿이라 한다. 대표적인 계 진도씻김굿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남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씻김굿이 전승돼 오고 있다.

화순 능주에도 씻김굿이 전승돼 오고 있다. 죽은 이의 천도를 빌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능주 씻김굿 공연이 14일 오전 10시 능주면역사관(능주 객사)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지난 2010년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50호로 지정된 능주 씻김굿은 삶을 위로하고 해원하는 의례다. 모두 12곳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혼맛이 조왕궁→안당궁→분향→선부리(선영궁)→제석궁→오구궁(뉘올리기 포함)→고풀이→씻김→길땀을→사신→대신치기'가 그것이다.

특집 이번 행사는 12곳거리 전체를 연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세습무계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조중석 선생이 전 과정을 주도한다. 조중석은 전라도 시나위 마지막 대가인 아버지 조계남과 어머니 박정녀의 무업을 이어 능주 씻김굿을 전승하고 있다.

오는 5월 19일에는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예정돼 있다.

남도학연구소 서해숙 대표는 "능주 씻김굿 공연은 무속 차원을 넘어 국악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남도의 문화적 전통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산"이라며 "공연이 함께 어울리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친화마을 코칭 지원 사업 광주여성가족재단, 14·17일 교육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지난 2020년부터 광주여성가족친화 마을의 코칭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다.

13개 마을에 1억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올해 여성가족친화마을은 마을공동체활동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마을공동체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이끄는 목표로 추진된다.

재단의 코칭 지원 사업은 마을별 컨설턴트 배치와 컨설팅, 분야별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교육, 제작상품 판로개척 및 공동판매 추진 등으로 이뤄진다.

14일(오후 4시)과 17일(오전 10시)에는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여성가족친화마을의 연결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친화마을의 이해' 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각 마을별로 반응이 좋았던 성평등교육을 시연하고 보급하는 교육도 진행한다. 동화책과 공예를 소재로 각 마을에서 활동가들이 기획·진행한 내용들을 전달한다.

그밖에 지난 3월에는 마을 성인지력 확산 사업 일환으로 유림의 '성평등을 위한 남성과 남성성 교육 이매진 하이라이트 워크숍'을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동네마다 문화예술 체험 공간 있어야”

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설문...전시·공연 활성화 28%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들이 동네마다 만들어져야 한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블루버스터급 전시와 공연이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광주지역 문화예술인과 애호가들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그 같이 답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이 문화예술인과 애호가들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100자 릴레이의 답변들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원포럼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설문을 보내고 응답자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800여명의 참여자 중 703명이 유의미한 응답을 보내왔다.

설문 분석 결과 ‘전시 및 공연 활성화’(28%), ‘작은 문화공간 조성’(23%), ‘체험형 문화 이벤트 확대’(12%), ‘홍보 활성화’(9%)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수 의견이지만 ‘국내 최고의 베이커리 스트리트 조성’, ‘드라이브스루형 작품관 구축’, ‘미·디어아트 특성화교육’, ‘버스 승강장에 문화형 사팜플릿 비치’ 등과 같은 내용도 있었다.

문화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답변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을 직접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기대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문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포럼은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 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은봉 안방준’ 고문헌 1356점 기증

보성 죽산안씨 종가,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송시열 친필 등 기탁

은봉(隱峰) 안방준(1573-1654) 선생은 조선 중기 호남을 대표하는 유학자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 의병장으로 출정해 활약했으며 ‘은봉전서’, ‘훈장편록’, ‘호남의록’ 같은 저술서를 남겼다. 은봉 안방준과 관련된 고문헌 등이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에 기탁됐다.

특히 이번에 수집된 자료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03호로 지정된 ‘안방준 교지’를 비롯해 고문서 140점과 대계서원 문서 4점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기탁은 멸실이나 훼손 위기에 처한 고문헌과 고서화, 근·현대자료의 보존 및 연구에 대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기초적인 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최근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에 자리한 죽산안씨 은봉 안방준 종가로부터 주요 고문헌 자료 약 1356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호남진흥원 고문헌 수집팀은 은봉 종가를 방문해 안방준이 당대 명현들과 주고 받은 편지를 엮어 놓은 ‘제한간독’, ‘선유왕복’ 등 서간첩본 4종을 수집했다. 해당 서간첩에는 안방준의 친필 편지를 비롯해 김장생·이정구·오윤겸·김집·윤환·송시열 등의 친필이 담겨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